

육아정책 소식

유치원 입학 「처음학교로」 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3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0월 28일(금)부터 시작하였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하여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0학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0월 28일(금) 9시부터 학부모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 가입과 유아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10월 31일(월)부터 시작되는 모집 유형별로 희망하는 유치원 3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유치원에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일반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온라인 서비스(‘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 다양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는 학부모는 서비스 시기별 정보와 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처음학교로’ 누리집과 누리소통망(공식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 입학 지원 시기와 같은 주요 일정 등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하고, 시기별 점검표도 제공하여 입학 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겨울방학 선물, 「디지털 새싹 캠프」가 열립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12월 12일(월), ‘디지털 새(New)싹(Software·AI Camp) 캠프’ 운영기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캠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한성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 발표)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과 교

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처음 실시되는 방학 중 교육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총 172개 기관(대학, 기업 등)으로부터 캠프 운영 계획서를 접수 받았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대학 59개, 기업 16개, 총 75개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운영기관들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캠프운영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5~40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특히, 캠프 운영 대학들은 정보교육을 필수로 받지 못한 현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대학생 캠프와 연계하여 대학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기업들은 전체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참가학생 수 기준)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개설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겨울방학 기간인 올해 12월 말부터 2023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각 운영기관은 12월 19일(월)부터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생들은 학년, 디지털 역량 수준과 흥미, 원하는 일정·시간·장소에 따라 다양한 캠프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 캠프 참여 방법 〉

- ❖ 신청방법 : 캠프 운영 기관에서 2023년 2월까지 상시 모집
 - 12월 19일(월)부터 인터넷 포털에서 '디지털 새싹'을 검색하면 학생 거주 지역 인근에서 열리는 캠프 프로그램 및 신청방법 등 확인 가능
- ❖ 교육참가비 : 무료
 - ※ 다수의 캠프에 참가도 가능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및 출석 인정 절차 간소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이하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10월 11일(화)부터 시행하였다.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이용자 부담 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결석한 경우는 보육료 부담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자와 운영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의 교육일수 인정 특례 등을 참고하여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 출석인정제도의 인정 기준 확대
 -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도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
2. 출석인정제도의 요청 및 관리 절차 개선
 -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이 지자체에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도 간소화

건강한 돌봄놀이터, 5년째 아동 비만 예방에 효과 특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2021년 운영 결과, 참여 아동의 비만을 감소와 더불어 식생활 개선, 신체활동의 증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전국의 보건소를 통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동 비만 예방 사업으로,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형 영양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 생활습관 형성 교육을 제공한다.

참여 아동의 사전·사후 신체계측 결과와 신체활동 및 식생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사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비만균율이 감소하였고, 신체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식생활 습관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업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중증 소아·청소년 진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2년 11월 17일(목)부터 2022년 12월 15일(목)까지 약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원으로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서,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지원하여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안정적인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식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신청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소아 전문인력 확보수준, 소아 진료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및 국내 아동단체 6곳은 12월 10일(토)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 진행한 포럼 이후, 아동 당사자가 아동기본법에 바라는 점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는 유튜브(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https://youtu.be/Vub7Jd0x9QE>)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가 ‘아동권리와 아동기본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토론에서는 아동단체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대표 14명이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였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을 비전으로,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총 4개 전략, 1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비전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			
목표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동등한 출발선 보장		
전략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경감 종합적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으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육아 건강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및 권리존중 확산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안정적·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육 사각지대 예방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고도화 	

‘부모마음 안심 지킴이’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는 「2021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총 35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각 서비스기관을 도시, 도농, 농촌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만족도,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관리, 예산집행 등 업무 전반을 다루었다. 전체 최우수 기관인 대구 달서구 서비스기관(도시)은 대부분 영역에서 점수가 높고, 특히 만족도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육아부담 완화와 경력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현재 이용 중인 담당 아이돌보미의 돌봄활동 및 기관의 서비스 신청·상담·연계 등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도시지역 1위 우수기관인 인천 부평구 서비스기관은 종사자들의 높은 돌봄 역량과 아이돌보미들의 적극성이 돋보였다.

도농지역 1위 우수기관인 충남 논산시 서비스기관은 집합교육과 대면 서비스가 제한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돌보미 수급 관리 및 전문성 제고에 각별히 노력하면서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농촌지역 1위 우수기관인 경북 청도군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수요증가에 노력해 신규 이용가정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농촌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자동연결(매칭) 시스템을 비롯, 효율적 데이터 관리 등이 가능한 아이돌봄 통합 연결공간(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평가 중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미흡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등 돌봄부담이 큰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돌봄미 양성교육 시 교육과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참신하고 건강한 보육서비스 모여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월 2일(금) 14시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2022년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해 온 보육공모전은 직장어린이집의 우수한 보육환경 및 보육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지속가능한 더자람을 위한 직장보육 현장에서의 직장어린이집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를 주제로 4개 분야(보육프로그램, 공간환경디자인, 우수운영사례, UCC)의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288편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와 직장어린이집 참여 투표를 거쳐 31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되었다.

〈 대상 수상작(분야별) 〉

분야	주요 내용
보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고침 유아들이 환경 문제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색다른 방향의 유아환경교육을 제시하고, 기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영유아 맞춤형 놀이 프로그램
공간환경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래프트톤역삼어린이집 ‘도심 속 작은 숲’이라는 테마로 나무와 식물을 곳곳에 배치한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감각과 창의성의 발달을 도모하고 자연적 요소를 통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이 증진될 수 있는 공간 설계
우수 운영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제로웨이스트 쓰레기량 증가로 환경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지속가능 실천 방법을 제시
U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해줘 지구~ 환경 사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지구를 의인화하고, 힘들어하는 지구를 도와주기 위해 아이들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